

AUTHOR 허순길

TITLE 역사적으로 본 개혁주의 “직분”
-19세기 미국장로교회를 중심으로-

IN 고려신학
vol.3 no.1 (December, 1993): 197-236

역사적으로 본 개혁주의 “직분”

—19세기 미국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허 순 길

1. 서 론

1.1 교회일치운동과 “직분”

20세기는 종교개혁후 어느 때보다 교회안에 직분에 대한 관심이 큰 시대였다. 특별히 20세기 중반에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¹⁾로 말미암은 세계교회일치운동은 교회직분에 대한 관심을 더하게 했다. 종교개혁후 분열된 여러 교파교회는 서로 다른 신앙고백서를 가졌을 뿐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직분관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교회

-
- 1) 1948. 8. 23에 Amsterdam에서 44개국으로부터 온 147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창설했다.
 - 2) The United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의 제의에 의해 창설된 이 COCU는 처음 4교파로 시작되었으나 곧 8개 교파교회로 증가하게 되었다;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Episcopal Church,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등이었다. 이 협의회 교회는 약 2천 5백만 신자를 포괄하고 있다.

협의회의 회원된 교회들 사이에서 교리적인 문제는 서로 관대하면서도, 교회체제와 직분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도적 계승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교회와 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교회 사이에는 교회일치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교회 일치 운동에 있어서 교회의 직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특별히 미국교회의 일치운동 역사로부터 잘 알 수 있다. 1962년에 미국교회의 통합을 목표로한 교회합동 협의회(Consultation On Church Union, 이하 COCU라 칭함)³⁾가 창설되었다. 이 협의회의 창설에 공헌을 한 블레이크(Eugene Carson Blake)는 일찍부터 감독의 역사적 계승을 목사직의 본질로 보는 교회와 이를 그렇게 보지 않는 교회가 통합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도직의 계승에 대한 어느 특별한 이론을 채용하지 말고, 재연합된 교회는 그 출발의 시점에서 모든 감독들이 사도적 계승을 해온 교회나 그렇지 않는 양편의 감독들과 사제들에 의해 성직수입(consecration)을 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⁴⁾

1970년에 COCU는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합동계획”을 작성하여 소속교단 교회에 지시했다.⁴⁾ 이 문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합동을 위해 교리문제에 관하여는 다만 간략하게 한 장으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교회정치와 직분 문제에 있어서는 4장으로 길게 다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 제의된 교회정치체제는 분명한 교권적 감독정치체제이다. 이 감독체제 안에서 개혁주의교회 정치체제의 핵심이 되는 장로직분의 여지가 없었

다. 장로(presbyter)라는 직명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는 실상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직(사제직)을 의미하고 있다.⁵⁾ 결과적으로 합동된 교회를 위해서는 감독체제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 합동을 위해서는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역사적 감독직을 전적으로 받아 들여야만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합하는 교회를 위한 합동계획”이란 문서가 나온후 20년이 지났으나, 아직 감독체제를 가진 교회와 장로교회 사이의 합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0년에 다시 “COCU Consensus: In quest of a Church of Christ Uniting”이라는 새로운 교회 합동을 촉진하기 위한 문서가 회원교회에 배부되었다. 그러나 COCU의 회원 장로교회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감독정치체제를 수용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 누구를 교회의 감독으로 추대할 것인가. 이 재연합된 새 교회안에 장로교회체제의 핵심직분으로 여겨 온 장로의 자리가 있는가 계속 토론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⁶⁾

12 미국 장로교와 장로직

미국의 장로교회는 17세기 이후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새 대륙에 이주해 온 여러 다른 배경을 가진 교파 교회들 속에서 장로교회의 정체(Identity)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특별히 19세기 중반에 장로 직분에 대한 열띤 논쟁이 20여년간 계속 되었었다. 이 논쟁은 주로 당시 미남북 양지역 장로교회의

3) Samuel McCrea Cavert, *The American Churches in the Ecumenical Movement 1900-1968*, (New York: Association Press), 254.

4) *A Plan of Union for the Church of Christ Uniting, Philadelphia* 1970. 이 문서는 COCU의 집행부에 의해 회원교회에 배부됨

5) “In the United Church three orders are to be recongnized with particular functions attaching to each: presbyter, bishop and deacon.” Ibid. 45.

6) *The Christian Century*, (January 16, 1991), 36, 37 이 협의회의 회원 교회인 미국의 남북 장로교회(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와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가 1983년에 재연합하여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를 이루었으나, 감독교회와의 합동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신학자인 Charles Hodge와 James H. Thornwell 사이에 있게 되었다.⁷⁾

이 논쟁의 단서는 장로직과 관련된 1842년 총회의 결정이었다. 당시 노회의 회원인 치리장로가 노회의 권위로 집행하는 목사임직시 행하는 안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때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부정적이었다.⁸⁾ 이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1843년 총회에 제출되었다. 이 총회는 전 총회의 결정을 재확인 하면서 치리장로는 목사와 같은 장로(presbyter)가 아니고, 교인들의 대표라고 밝히면서, 장로는 목사후보생의 자격을 판단하는 일에 가담할 뿐이고, 안수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⁹⁾ 또 같은 총회에서 노회의 성수에 장로가 포함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총회는 치리장로의 참석이 없이 목사참석

7) Charles Hodge(1797-1878)는 미 북부지역에 있는 Princeton Seminary 교수로 1820년에 취임하여 교수생활 50년 회년을 맞이까지 함으로 미국 장로교회에 주도적 영향을 끼친 분이었다. James Henry Thornwell(1812-1862)은 미국 남부 지방 Carolina에 위치한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로 50세에 별세함으로 단명했으나 남장로교회의 전통의 터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였다.

8) 총회의 결정; "Resolved, that it is the judgment of this General Assembly, that neither the Constitution, nor the practice of our Church authorizes ruling elders to impose hands in the ordination of ministers."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A., with Appendix, vol. 10, 183.

9) Ibid. 1843, 393-394

10) 총회의 결의; "Resolved, that any three ministers of a Presbytery, being regularly convened, are a quorum competent to the transaction of all business, agreeably to the provision contained in the Form of Government. chap. 10. sect. 7". Ibid. 198.

문제가 된 정치항목은; "Any three ministers, and as elders as may be present belonging to the presbyter, a quorum competent to proceed to business."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s amended in the years 1805-1894, (Philadelphia, 1897), 43(chap. 10. 7).

만으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노회의 성수가 된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¹⁰⁾ 이 결정 역시 장로의 안수참여권을 부정했을 때와 같은 원리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치리장로는 단지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노회의 성수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¹¹⁾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치리장로의 위치, 기능, 권한의 문제가 크게 교회안에 대두되게 되었다.

이 총회의 결정의 배후에는 실상 미장로교회의 핵심 신학교육 기관인 Princeton 신학교에서 이미 20년 이상 교수로 봉사하면서 교회에 잘 알려진 Hodge의 영향이 컸었다. 이 때 이 총회의 결정의 내용을 비판하고 일어난 분이 Thornwell이었다.¹²⁾ 그런데 그의 비판의 대상은 실상 총회가 아니고 Hodge였다. 당시 Hodge는 50대의 영향력있는 교수였고, Thornwell은 30대의 애뎨 젊은 교수였다. 이 두분의 논쟁은 1861년 시민전쟁의 발발로 남북장로교가 분립될 때까지 거의 20년간 계속 되었다. 남북 장로교가 분립된 후 북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는 장로직의 견해에 있어서 1842년의 총회의 결정을 견지함으로 Hodge의 견해를 전적으로 따르게 되고, 남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는 Thornwell의 견해를 전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서 서로 다른 전통을 세워가게 되었다.

13 개혁주의 교회와 장로직의 중요성

11) Ibid. 389

12) 1843년부터 1860까지의 Thornwell의 글들은 주로 Baltimore Literary and Religious Magazine, Spirit of the Nineteenth Century, Southern Review, Princeton Review 등에 실렸다. 이 대부분의 글들은 John Adger가 편집한 Collected Writings vol. 4, Richmond 1873에 수집되어 있다.(앞으로 이 저서는 Writings으로 표기함).

Hodge의 논쟁적인 글은 대부분 Princeton Review에 발표되었으나, 이 글들은 *The Church and Its Polity*, London 1879에 수집 수록되었다.(앞으로 이 저서는 Polity로 표기함)

개혁주의 교회(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는 장로직에서 찾게 된다. Calvin이 장로제도를 교회에 도입한 것은 천년이상 교회에 정착된 교권적 사제주의와 결별을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교회에 장로직이 자리를 잡음으로 교회안에 교권이 사라지게 되고, 소위 성직세계와 평신도 세계사이에 인위적으로 질적인 차별을 만들어 놓은 담이 제거되었다. 개혁주의 교회가 장로직을 포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정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로직 제도는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이다(Jus Divinum). 그리고 개혁교회가 장로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사제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개혁주의 교회가 직분관에 있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장로교회는 교회합동을 위해 장로직을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로직을 견지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도 장로와 목사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내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목사들에게는 감독주의 지향적 경향이 들어나고 있으며, 장로들에게는 교회 교인들의 대표라는 의식을 가지고 목사의 교권을 견제하려 들므로 양자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인 직분관을 바로 정립하고 있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중반에 미국 장로교회안에 있었던 장로직에 대한 Hodge와 Thornwell의 논쟁을 연구함으로써 장로직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정리해 보려 한다.

2 장로직의 성격에 대한 핵심문제

2.1 Presbyteros의 원래의 기능에 대한 상이한 견해

Hodge와 Thornwell은 성경의 presbyteros가 원래 치리하는 직분이었느냐 혹은 가르치는 직분이었느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대립을 하게 되었다. Hodge에 의하면 성격에 나타난 presbyteros는 원래 가르치는 직분이었고, 치리 장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명칭이었다. 그는 성경의 presbyteros와 episcopos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를 증명한다.¹³⁾ 어떤 분이 Presbyteros이면 episcopos이다. 이 Episcopos의 자격은 디도서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Presbyteros는 원래부터 가르치는 직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presbyteros는 감독이었고, 감독은 치리자, 교사일 뿐 아니라 임직권을 가진 자였다는 것 이상 성경과 고대로부터 더 분명한 것은 없다”고 했다.¹⁴⁾ 그리고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¹⁵⁾와 「교회정치」¹⁶⁾에 호소했다.

Thornwell은 이에 대하여 Hodge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장로교회의 장로(ruling-elders)가 성경의 Presbyteros와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presbyteros는 원래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었고, 치리(治理)하는 직분이었으며, 설교기능은 원래의 presbyteros의 기능에 첨가되었다는 것이다.¹⁷⁾ 그는 여러가지로 prebyter가 원래 치리직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먼저 presbyteros가 초대교회에서 치리하는 직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presbyteros 가운데 몇사

13) Hodge, Polity, 268.

14) Ibid. 268.

15) Ibid. 264, Calvin's Institute 4, 3, 8.

16)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hil, 1897, 16; “The ordinary and perpetual officers in the Church are bishops, or pastor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usually styled ruling elders, and deacons.”

17) Thornwell, *Writings* 111-131.

람이 실제로 설교를 했고, 나머지 presbyteros들은 본래의 봉사기능인 다스리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바울이 딤후전 5:17에서 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¹⁸⁾

또한 Thornwell은 presbyteros라는 직명을 빌려오게 된 유대인들의 회당생활에서 이 어휘는 가르치는 직책을 가리키지 않고, 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다스리는 직책을 가리켰다는 것이다.¹⁹⁾ 그리고 Thornwell 역시 Presbyteros와 episcopos가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서, prebyter는 원래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증거를 찾는다. 그는 고전(古典)이나 70인역(Septuagint)에서 episcopos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는 다스리는 직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²⁰⁾

나아가 Thornwell은 장로교 교회정치가 장로직분에 대한 증거를 딤후전 5:17에 언급함으로 치리장로가 Presbyteros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고, Calvin도 그의 주석에서 presbyteros의 원래의 직책이 다스리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한다.²¹⁾

이 양자의 견해차이는 장로직의 입장, 기능, 권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presbyteros의 원래의 봉사기능이 무엇이었나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2 원래 치리직분으로서의 Presbyteros

Hodge와 Thornwell 양자 모두 Presbyteros와 episcopos를 동의어로 보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그러나 이 직명들의 기능에 관하여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 Hodge는 Presbyteros가 가르치는 직분이라

는 것을 Episcopos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디도서 1장에 근거를 둔다.

그럼 여기에서 두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첫째는 Episcopos가 참으로 가르치는 직분만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스리는 직분자에게 가르치는 활동이란 아주 생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에 관하여는, episcopos가 일반 회랍어에서나 성경에서 결코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라, 다스리는 직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휘는 감독자, 감시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말은 파숫군, 보호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Homerus에게서도 이 말은 '신들이 조약의 감시자라'(marturoi essentai kai episcopos kopi harmoniacon)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²²⁾ 일반적으로 이 말은 여러 종류의 직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되,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고 외적인 질서를 돌보는 직책을 가리켜왔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용된 이 말의 기원을 일반 회랍어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유대인들이 사용한 70인역(Septuagint)에서도 이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랍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연히 이 어휘를 교회안에 직분적인 용어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²³⁾ 그런데 왜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두 가지 어휘 episcopos와 presbyteros가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는가? 이는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episcopos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presbyteros를 선호한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⁴⁾ Episcopos는 특별히 바울의 선교지에서 사용되었다.²⁵⁾ 결과적으로 episcopos는 분명히 권위있는 자리와 다스리는 직분을

18) Ibid., 118.

19) Ibid. 42. "To the zakinim or Elders pertained the offices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They could bind and loose and preside in the assemblies, but never seems to have looked on the imparting of oral instruction as any part of their appropriate functions."

20) Ibid. 111, 112.

21) Writings, 282 sq.

22) Kittel의 TWB안의 episcopos 항목에 나타난 H. W. Beyer의 글을 보라.(앞으로 Worterbch zum Neuen Testament, von Gerhard Kittel, Statgart 1933을 TWB로 표기함)

23) G. Ch. Aalders, *Christelijke Encyclopaedie*, V, Kampen(1929)의 Septuagint 항목을 보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직분의 명칭인 Presbyteros와 동의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둘째 문제인 가르치는 활동이 다스리는 직분에 생소한 요소인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다. 가르치는 일은 처음부터 다스리는 직분에 생소하지 않았다. 초기 교회생활서에는 가르치는 일을 비상한 직을 받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안에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가 충만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 신령한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게 되었다. 고전 14장은 이런 형편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 동안에는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할 특별한 직분에 대한 큰 필요성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서게 되었다(행 11:30). 언제 이들이 임직되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Bavinck는 이 장로들이 행 6장의 일곱(집사)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으로 생각한다.²⁴⁾ 이런 견해는 매우 이해할 만하다. 오순절 이후 교회의 빠른 성장은 사도들만으로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함께 다스리고 감독하며 가르칠 수 있는 유용한 분들을 회당의 예를 따라 교회의 장로로 세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²⁵⁾ 이 장로들은 사도들의 공의회에서도 교리토론에 가담하고 사도들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복음지식의 소유자들이었다. 교회를 다스린

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다. 장로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 장로직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역사의 진전을 따라 장로(감독)의 능력과 지식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바울은 일찍부터 거짓 교사들(이리)의 침투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할 것을 감독들(장로들)에게 부탁했다(행 20:28~31). 교회는 신속하게 로마까지 확장되어 갔다. 비상한 직분을 받았던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차츰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져 갔다.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들이 일어났다(벧후 2:1, 요일 4:1, 고후 3:1).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의 유혹이 있게 되었다. 이 모든 환경은 장로들(감독들)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선한 지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 하여야” 한다고 했다(딤후 3:2, 디 1:9 참고). 장로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대로 감독(장로)직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이었음이 확실하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딤후 5:17에서 언급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할지니라”고 한 말을 생각하게 된다. 사도는 여기서 분명히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로들과 다스리는 일과 함께 설교와 가르치는 짐을 지고 있는 장로들을 구별하게 된다. 후자의 장로들은 장로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더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직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성경본문과 비교할 때, 이 딤후 5:17은 장로직에 있어서 뚜렷한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장로는 원래 다스리는 책무를 지고 있었다. 그런데 때가 지남에 따라 이 장로직분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책을 겸한 장

24) James Bannerman, *The Church of Christ*, vol.2 (London: 1960, reprint), 274.

25) H. von Campenhausen, *Kirchenliches Amt und Geistliche Vollmacht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 Tübingen 1953, 88.

26)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4th ed. vol.2 Kampen 1930., 323.

27) P.A.E. Sillevs Smit, *De Organisatie van de Christijke Kerk in den Apostolischen Tijd*, Rotterdam 1910, 67.

로가 구별되게 되었다.²⁸

가르치는 일은 처음부터 장로의 직에 필요했고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고로 감독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감독은 원래 말씀의 종인 목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Hodge의 말은 지지하기 어렵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감독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감독의 직책이 원래 다스리는 직분의 명칭이라고 한 Thornwell의 견해가 옳았었다.

23 Calvin과 Presbyteros

Hodge와 Thornwell 양자가 다 자신들의 견해의 정당성을 Calvin에게 호소하고 있다. Hodge는 성경의 episcopos와 presbyteros라는 명칭이 말씀의 종에게 해당된다는 그의 의견이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 칼빈에 호소하고 있고, Thornwell도 이 명칭들이 다스리는 직분에 해당된다는 그의 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시 Calvin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분문제에 대한 Calvin의 이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양신학자들의 호소가 부분적으로만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Calvin에게 있어서 직분에 대한 이해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536년의 그의 기독교강요 제1판을 펴냈을 때에, 그는 아직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만 관심을 갖었었다. 그에게 있어서 Episcopos, presbyteros는 동의어이고, 이는 다 말씀의 종 곧 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때에 그의 이 주장은 로마의 감독

주의 교권에 대한 큰 도전이었다.²⁹ 그가 1547년에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 교회안에 모범된 생활과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 협력을 얻게 되었었다. 그는 일지기 法을 연구하여 법에 밝은 사람으로 권징이 없는 도시에서 바른 질서와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 이들을 세운 것 뿐이고, 교회 직분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의 기독교강요에 밝힌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었다.

그의 교회 직분에 대한 어느정도 분명한 견해는 그가 제네바로 부터 추방당해 살아오던 Straatsburg에서 Genera로 다시 돌아온 1541년에야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제네바로 돌아오자 「교회법」을 초안하여 시의회에 허락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처음으로 네가지 교회직분을 제시하게 되었다: 목사, 교사, 장로와 집사.³⁰ 여기에 장로직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혁주의 교회법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순간이었다. 1537년에 비하면 1541년 그의 직분관은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Calvin이 이 1541년에도 교회법에 제시된 장로직에 관하여 아직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단지 설교자의 직분에 대해서만 성경적인 명칭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1541년의 교회법 후에 1543년판 기독교강요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수정판은 그가 Straatsburg에 머문동안 작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여기서 장로직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인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1537년에 취한 입장과의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는 먼저 Presbyteros와 episcopos가 동의어인 것을 디 1:5, 7, 빌 1:1, 행 20:17, 28을 지적하며 밝힌다. 그런다음 그는 이 명칭들이 말씀의 사역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 말하기를; “여기서

28) H. Bavinck, o. c., vol. 4 326.

29) Opera Omnia edited by G. Baum 1, 185-187(앞으로 OC로 표기)

30) Ordonnances Ecclesiastiques의 본문은 OC Xa, 15-30을 보라.

우리는 말씀의 봉사에 종사하는 직분들을 지금까지 들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³¹⁾ 결국 Calvin은 치리장로직분의 성경적인 근거를 presbyteros와 episcopos에서 발견하지 않는다. 그는 그 근거를 롬12:8의 proistamenos(다스리는 자)와 고전12:28의 kuberneseis(다스리는 것)에서 찾는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그는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presbyteros 곧 “말씀을 전하는 일에 봉사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봉사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딤후전 5:17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다.³²⁾ 그는 또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직분과 다스리는 직분이 presbyter라는 같은 반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여 이르기를 “장로들의 반에서 부분적으로 목사와 교사들이 선택되고, 나머지는 행위와 생활의 징계를 돌보게 되었다”고 했다.³³⁾

이로 보아 그가 가르치는 직분을 원래 다스리는 직분인 presbyteros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제시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그가 말한 것들 사이에 일치성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Calvin의 이런 모호한 입장은 그의 성경주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기독교강요에서와 똑같이 주석에서도 presbyter와 episcopos를 말씀의 봉사자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는 빌 1:1의 주석에서 episcopos를 목사로 이해하고 있으며, 디 1:5의 주석에서 presbyter가 1:9에서 episcopos로 불려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말씀의 봉사자 목사로 보고 있다.

이 해설로부터 Calvin이 episcopos를 presbyteros반에서 선택된 가르치는 직분으로 보고, presbyter는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로

31) OC 1, 567, 기독교강요 4권 3장 8절을 참조.

32) Ibid. 1.c OC 1, 567.

33) OC 11, 788, 기독교강요 4, 4, 1

본 것으로 결론 내리기 쉽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다른 예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행 15:23이 말하는 presbyter를 그는 가르치는 직책을 가진 자로 다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episcopos와 분명히 동의어인 에베소교회의 presbyteros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 20:28의 주해에서 그는 “여기서 우리는 episcopos라는 이름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에베소의 모든 presbyter들이 구별 없이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내는 결론은 성경의 관습을 따라서 장로와 감독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³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서로 관련을 지워가며 다루어감에 있어서 칼빈의 견해가 선명하지 않았고, 일관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Calvin은 또한 딤후전 5:17의 주해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presbyteros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³⁵⁾

Calvin이 밝힌 이상의 모든 것을 개관할 때, 몇가지 어려움이 당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심되는 것이, 치리장로의 성경적인 기원을 밝히 제시하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presbyteros와 episcopos간의 동일성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줄곧 주장하는지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는 한 때 감독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본다.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presbyteros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하게 된다. 그런 다음 다시 두 종류의 장로에 관하여 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alvin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나 주해에서 presbyteros, episcopos 양자를 가르치는 직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체를 살필 때, 우리는 그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Episcopos와 같은 presbyteros는 원래 가르치는 직책을 가졌

34) OC XLV 111, 468.

35) OC L 11, 315.

었다. 후에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교인들을 통해 선택을 받은 자들이 다른 반을 이루지 않고 이미 있는 직분자들의 반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고전 12:28과 롬 12:8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바울)는 여기서 정부의 직분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 그는 교회의 영적 치리를 담당하기 위해 목사들에 가세된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런 설명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치리장로의 근원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모호한 입장 때문에 여러가지 추측을 하게 되었다. Calvin에게는 실천이 먼저 있었고 이론이 뒤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과 교부들의 연구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Calvin이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설교 직분의 회복과, 말씀의 전파에 특별히 큰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복음의 전파가 거의 사라진 로마교회의 성례중심의 사제주의 앞에 필요한 것이었다.³⁷⁾ 그러나 Calvin에게 있어서 교회정치 문제는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양자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성경적인 근거위에서 치리장로직을 세우는데 이르렀고, 성경안에서 그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Bouwman이 “Calvin이 신약에 가르쳐졌으나, 로마교회로 말미암아 변질된 장로의 직분의 명예

36) OC 11, 892, 기독교장요, 4, 2, 1

37) John Macpherson, *Presbyterianism* (Edinburg, 1949), 87.

를 회복시켰다”고 한 말은 옳은 말이다.³⁸⁾

결론적으로 Hodge가 성경의 Prdsbyteros는 단지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주장하고 Calvin에게 호소한 것은 바르지 못했고, Thornwell도 두 종류의 presbyteros가 있었는데 presbyteros가 원래 다스리는 직분이었다고 하는 주장을 Calvin에게 호소한 것도 정당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모두 Calvin에게 호소하기 전 먼저 Calvin의 직분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연구했어야 했다. Calvin에게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직분에 대한 모호한 견해가 후시대에 개혁주의 교회안에 상이한 직분의 개념을 남겨놓은 단서가 되었다.

24 「교회정치」와 Presbyter

Hodge와 Thornwell 양자가 다 장로직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관련하여 Calvin에게 뿐 아니라, 당시 장로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표준 문서인 「교회정치」에도 호소를 했다.

Hodge에 의하면 “교회정치”는 말씀의 봉사자만을 episcopos 혹은 presbyteros라 부르고, 치리장로는 단지 “government”로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³⁹⁾ 이에 반하여 Thornwell은 “교회정치”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나, 간접적으로 Presbyter라는 명칭을 장로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목사를 Presbyter라 하는 것은 그가 교회를 다스리는 기능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정치에 의하면 Presbyter는 말씀의 봉사자에 대한 동의어가 아

38) H. Bouwman, *Gereformmeerde Kerkrecht*, 1, Kampen 1928, 522. Joh. Janssen. *Korte Verklaring van de Kerenordering*, Kampen 1923, 93.

39) “The ordinary and perpetual officers in the Church are bishops or pastor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usually styled ruling elders, and deacon.”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hil. 1897, 16.

니고, 다스리는 직분의 동의어라는 것이다.⁴⁰⁾

이들이 각자의 정당성을 위해서 정치표준문서인 “교회정치”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하듯 최고와 심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⁴¹⁾ 이 교회정치를 잘 살펴보면 이 양 신학자가 이 문서에 호소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만 옳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분에 대한 이 교회정치의 설명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혼란은 장로의 문제에 있어서 선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원인은 이 “교회정치”의 전역사(前歷史)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미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총회(1643-1649)가 작성한 The Form of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를 환경을 따라 약간 수정을 한 다음 1788년 총회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⁴²⁾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총회가 장로의 직분에 관하여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목할 것은 웨스트민스터총회가 치리장로의 직분을 *jus divinum*으로 확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Assembly에 모인 신학자들이 장로직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서로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웨스트민스터총회의 소집은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문제보다는

40) Ibid. 16, 17 “As it is his duty to be grave and prudent, and an example of the flock, and to govern in the house and in the kingdom of Christ, he is termed presbyter or elder.”

41) *Westminster Confession* 1;10.

42) C. Hodge,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414.

43) George Gillespie, *Notes of Debates and Proceedings of the Assembly of Divines and other Commissioners at Westminster, February 1644 to January 1645*, Edinburg 1846. V11-1X.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New York 1931, 12, 13

개혁해가는 영국교회를 위해 어떤 교회정치제도를 세우느냐에 목적이 있었다.⁴⁴⁾ 그런데 이 Assembly의 회원 신학자들 간에 교회정치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거기에는 교회정치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⁴⁵⁾ 첫째, 고교회주의자들, 둘째로 회중교회주의자들, 셋째 국교회주의(erasian), 넷째 장로교체제와 감독교회체제의 요소를 함께 수용하기를 원하는 자들, 다섯째로 장로교정치체제 지지자들이 있었다. 이로 보건대 교회정치문제를 논의하는데 의견이 상충이나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었다. 비록 장로교회체제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회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과의 결별을 원하지 않는한 그들의 견해를 밀고 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교회정치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 양보와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⁴⁶⁾ 특별히 치리장로직분의 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의 적응과 협상은 불가피했다. 국교회주의자들이 장로직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Assembly는 처음에 담전 5:17이 말하는 두가지 종류의 장로에 관하여 토론을 시작하여 10일을 보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겼다. 이 위원회가 제출한 문서는 교회치리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보장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치리장로직분의 성경적인 증명을 위한 성경구절에 롬 12:7,8과 고전 12:28이 제시되었을 뿐, 담전 5:17이 제거되었었다. 그리고 치리장로의 명칭을 “Church-governors”로 단순히 표기하고 있었다.⁴⁷⁾ 이 문서는 다른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과의 협상의 산물이었다. 치리장로직이 단지 성경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철저

44) o.c. 37, 38. J. R. de Wittm, *Jus Divinum.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Divine Right of Church Government*, Kampen, 1969, 21-31.

45) Warfield, o. c., 38.

46) J. Lightfoot, o. c., 69, MS, L, 477-481.

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인 Henderson은 이는 “양자를 수용하는 일반적인 말”이라고 했다. Assembly는 장로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의미에서 *ius divinum*을 제시하는데 이르지 못했고, 당시 장로직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다수들 점한 철두철미한 장로교 신학자들도 치리장로직에 관하여 “성경에 일치하고 보장되는 직분”이라는 표현으로 만족해야 했다.⁴⁷⁾ 이 Assembly가 최종으로 받게된 “Propositions Concerning Church Government”은 약간 개선되었었다. 그러나 원리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증거 성구로 딤편 5:17이 포함되지 않았었다.⁴⁸⁾

결과적으로 웨스트민스터총회는 치리장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의 *presbyteros*나 *episcopos*에서 찾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총회가 받은 교회정치를 거의 그대로 받았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회헌법」 *episcopos*, *presbyteros*라는 직분 명칭은 모두 목사에게 돌려지고 있고, 장로는 단지 “교인들의 대표”와 성경적인 명칭으로서는 “다스림”만으로 표현되어 있다. 미 장로교회의 “교회정치”는 웨스트민스터총회의 것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고, 개선되었다면 단지 딤편 5:17이 치리장로의 증거구절로 첨가된 것이었다.

Hodge와 Thornwell 양자는 치리장로직을 논함에 있어서 이 “교회정치”의 배경 역사를 연구하여야만 했었다. 이들이 단지 “교회

47) J. R. de Witt, o. c. 85.

48) “As there were in the Jerusalem Church Elders of the people jointed with the priests and Levites in the government of the Church(as appeareth in the Chro. 19:8, 9, 10), so Christ, who has instituted a Government and governors ecclesiastical in the Church, hath furnished some in his church, beside the ministers of the Word, with gifts for government, and with commission to execute the same when called thereunto, who are to join with the Ministers in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Rom 12:7, 8, 1 Cor. 12:28, Which officers, Reformed Churches commonly call Elders.”

정치”문서 자체에 나타난 것만으로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양자가 다 부분적으로 정당성을 보였을 뿐이다. “교회정치”의 연구나 Calvin의 견해에 대한 연구는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게 된다. *Episcopos*(*presbyteros*)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안에서 원래 다스리는 직책을 가졌었다. 이 가운데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기원이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Thornwell의 성경적 역사적 연구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Hodge의 치리장로직에 대한 견해는 너무 피상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직분자의 동등권

Hodge는 목사가 교회의 최고직분이라고 한다.⁴⁹⁾ 그리고 그에 의하면 가르치는 직분만이 명실공히 직분이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평신도이다. 그래서 그는 “치리장로는 신적인 인정을 받아 모든 교회치리회에서 목사들과 같은 권위를 행사하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선택된 평신도이다”라고 한다.⁵⁰⁾ 나아가 그는 장로교회를 “교구감독정치”(parochial episcopacy)로 표현하여 말하기를 “영국교회의 법이 고위성직자제도(*prelacy*) 혹은 관구감독제(*diocesan episcopacy*)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법은 교구감독정치(parochial episcopacy)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장로교이다.” 고 한다.⁵¹⁾ 그는 이런 이론을 “교회정치”에서 목사에게 대하여 “교회 내에서 권위와 유익면에서 첫째”라는 표현에 근거를 하고 있다.

Thornwell은 Hodge의 이런 견해를 전적으로 거절하고, 목사와 장로의 동등권을 옹호한다. 그는 직분간에는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면에 있어서 구별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49) Hodge, Prebyterianism, article in *Princeton Review*, 1860, 546.

50) Polity, 130.

51) Ibid, 275.

Thornwell도 “교회정치”에 이를 호소하고 있다.

31 미 장로교회의 “The Form of Government”

앞서 밝힌대로 미 장로교회의 법은 Westminster의 것을 원리적으로 따르고 있다. Westminster 교회정치는 목사 장로직분의 성경적인 근거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음 시대에 직분간의 불평등 개념을 갖게한 단서를 주게 되었다.

그런데 미장로교회의 교회정치와 Westminster의 그것을 비교해 볼 때에 불행하게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역사가 진전되어 갔음을 보게 된다. Westminster Government의 목사와 장로 양직분에 대한 표현은, 미장로교회의 것보다 매우 온건하다. 목사에 관하여 “목사는 복음시대에 대해 예언하는 교회안에 있는 일반적 항구적 직분자이다”라고 하고, 장로직에 관하여는 “교회안의 교회의 치리자”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양직분 사이에 어떤 분명한 계급적인 차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목사와 장로가 다 “다스리는 직분자”라고도 불려지고 있다.⁵²⁾ 미 장로교회 법에서 목사직을 “교회에서 첫째”라고 한 것은 아주 새로운 표현이다. 말씀의 봉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이런 표현을 생각할 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장로가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일이나, 집사가 자비의 봉사를 하는 일 모두가 다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편이고, 교회봉사생활에서 고유한 자기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미장로교회법에 나타난 “첫째”라는 부자연한 표현을 계급적 차원에서 보고 목사의 위치를 강조한 Hodge의 입장은 유감스런 일이었다.

52) I. Murray, o. c. 209-217.

미국의 남북 장로교회가 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을 오랫동안 수정하지 않고 보존해 왔다.⁵³⁾ 그런데 미 정통장로교회(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와 근년에 미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가 수정된 교회법에서 지난날의 이런 표현을 완전히 제거하고 목사와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표현하게 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⁵⁴⁾

32 성경적 증거에의 호소

Hodge가 목사직분을 가장 높은 직분으로 보는 것은 성경의 Presbyteros가 원래 말씀의 사역자를 가리킨 것이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은 그 어휘 자체가 원래 가르치는 직분을 가리켰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그 힘을 잃게 된다.

그가 다음으로, 가르치는 목사직분을 최고로 보는 것은 교회안에는 설교직보다 더 고상한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⁵⁵⁾ 성경은 이런 이론에 어떤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의 직분을 높고 낮은 차원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광스럽고 가치있는 것은 틀림없다. 바울도 “선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였다(롬 10:15). 그리고 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 존경하라고 했다

53) *The Book of Order*, United Presbyterian Church, 1970-1971, 38. *The Book of Church Order*.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1964, 33.

54) Second Revised Version of a Form of Government for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drafted by the Committee on Revision to the Form of Government, Phil. 1967, 9 cf. 10, 15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Committee for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1981, Chap. 8.

55) *Presbyterianism*, 411.

(딤펴전 5:17). 그러나 이 존경은 계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존경이 언제나 계급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안의 각 직분은 주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각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안에서 높고 낮은 직분을 말하는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Calvin이 말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도 “흠으로부터 빔어져 나온 보잘것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⁵⁶⁾

나아가, Hodge가 목사가 최고직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가 말씀의 봉사자의 위치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입장으로 보는데 있다.⁵⁷⁾ 이는 사도시대에 활동했던 이 전도자들의 특별한 위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다. 디모데나 디도같은 전도자들은 사도들과 더불어 교회의 터를 놓는데 동참한 분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역사적으로 “사도적인 인물들”(Tertullianus), “사도들과 거의 대등한 사도들의 대리자들”(Augustine)이라고 불려졌다.⁵⁸⁾ 결과적으로 목사들이 디모데와 디도 같은 분들의 계승자라는 뜻에서, 교회내에 최고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33 성경에 따른 직분자간의 동등권

Hodge가 상술한 대로 교회직분세계에 어느정도의 교권체제를 옹호하는데 반하여, Thornwell은 목사와 장로간의 동등권을 강조하고 나온다. 그런데 그의 이론은 이 동등권을 옹호함에 있어서, 직분은 교회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기관이라는 이론을 사용한다. 그래서 말씀의 종은 교회의 입이요, 장로는 교회의 손이라고 한

다.⁵⁹⁾

직분이 교회를 위해 있고, 봉사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직분을 단순히 교회의 기관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직분자들의 동권은, 비록 소명의 구별은 있을찌라도,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직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데 근거해서 주장되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그가 직분자로 기름부음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소유한 직분자이다. 그는 세가지 직분을 함께 가진 분으로 아버지를 통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도 불려진다(히 3:1). 그는 세상에 오셔서 그의 직분적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는 하늘에서도 지금 세가지 직분자로 계신다. 그는 하늘로부터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신다. 그는 하늘에서도 그의 직분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의 이행을 직접 하시지 않고, 그가 불러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 하시고 계신다. 그는 그의 교회를 위해 사람의 봉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⁶⁰⁾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을 다 추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잘 살피면 전혀 알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직분의 발전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인간 계획의 전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사역의 진전을 보게 된다. 그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가 한순간도 교회밖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⁶¹⁾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셨을 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56) 기독교강요, 4, 3, 1

57) Ibid. 268.

58) J. Macpherson, o.c. 76.

59) Thornwell, Writings, 272 sq.

60) H. Bavinck, o. c. iv, 361.

61) A. Kuyper, *Tractaat van de Reformatie der Kerken* (Amsterdham 1883), 15.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셨었다(눅 9:1, 2, 10:9). 승천후에 그는 교회의 터를 놓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다(요 20:21).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 사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로 보내신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처음에 그의 삼중직을 사도들을 통해 행사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였다. 교회가 점점 성장되어져 갔을 때에, 교회의 필요를 따라 그의 이 직분적 활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맡겨져감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직분의 分枝현상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6장에서 자비의 사역이 일곱 사람들에게 맡겨지고, 행 14:23(11:30 참조)에서 교회의 치리가 장로들에게 맡겨지며, 말씀의 봉사가 장로들중 어떤 분들에게 맡겨지게 됨을(딤후 5:17, 계 1:20)보게 된다. 이렇게 사람을 불러 직분자로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삼중직을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안에서 수행해 가고 계신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이 직분들은 계급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각 직분자는 자기의 위치에서 한분 직분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Bavinck는 교회정치를 다루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 가르치시고, 장로직을 통해 다스리시며, 집사직을 통해 그의 양무리를 돌보신다; 이 세 직분을 통해 그는 우리들의 최고 선지자이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들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해주고 계신다.”⁶² 그리스도의 세 직분사이에 높고 낮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세 직분에 대해서도 직분의 높고 낮음을 인정하는 교권적

62) Bavinck, o.c. iv, 371.

인 제도를 생각할 수 없다.⁶³ 그러니 교회의 직분은 기능면에서 구별이 있을 뿐이고, 계급면에서 차이는 없다. 한 직분이 다른 직분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직분들은 다함께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섬기고 있다. 직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인 고로 직분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교권적인 원리는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Hodge의 교권적 요소를 포함한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분을 단순한 교회의 기관으로 보는 Thornwell의 견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예를 들면 말씀이 교회에 맡겨져 있음은 사실이다(딤후 3:15). 그러나 목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그는 교회의 입이 아니고, 그를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입이 되는 것이다.

4. “교인들의 대표”?

Hodge와 Thornwell 양자가 다 장로를 “백성의 대표”라고 표현한 데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양자는 이에 대한 각기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Hodge는 그가 비록 장로교정치를 민주정치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정치의 의미로 생각했었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직분자들만이 아닌,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신자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모든 신자들은 교회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⁶⁴ 그의 이 민주적인 사고는 적은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큰 교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함으

63) Idzert van Dellen en Martin Monsman, *The Revised Church Order Commentary*, Mich 1968, 25.

64) Presbyterianism, 404-407, Polity, 5, 15sq.

로 대표로 장로를 세운다고 말한데서 특별히 나타나고 있다.⁶⁵⁾

Thornwell은 이 Hodge의 민주주의적 견해를 거절한다. 그는 장로직은 결코 교회공동체의 산물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다고 한다. 교회정치는 교회가 그 삶을 구현하는 형식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⁶⁶⁾ 그러나 그도 이 “백성의 대표”라는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Hodge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이 말을 공화국에서 시민에 의해 선택을 입어 의회에 나아가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재량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선택받은 치리자”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⁶⁷⁾ 결국 Thornwell 역시 세속적인 정치적 해석을 교회정치에 적용하고 있다.

41 “교인들의 대표 (Representative of the people)”란 말의 부당성

“교인들의 대표”란 말은 세상 정치저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교회의 직분에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직분의 고유한 성격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런 어휘는 교회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 이 어휘는 교회의 자율적 정치를 부인하는 Erastus주의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웨스트민스터총회의 the Form of Government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말이다. 거기에는 “governors ecclesiastical in the Church”라는 조심스런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여러 개혁교회들의 정치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교회만이 이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양 신학자가 아무런 위험을 의식하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이 장로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정치로부터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매

65) Polity, 93.

66) Writings, 97, 272 sq.

67) Writings, 97-99.

우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우리는 미장로교 정치가 회중교회의 영향을 입었음을 의식하게 된다. 미 장로교회는 식민초기에 회중교회와 매우 가깝게 지나게 되었다. 그 결과 1801년에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The Plan of Union”을 따라 연합을 하였었다. 이로 말미암아 장로교회는 회중교회의 영향을 받아 정체성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의 교회정치 체제를 사람들은 “Presbygational government” 혹은 “Congraterial government”라고 부르기까지 했다.⁶⁸⁾ 그래서 장로교 정체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 1837년에 1801년의 “The Plan of Union”을 취소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장로교 안에는 회중교회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남게 되었다. 회중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주권의 사상이 지배했었다. 교회정치는 전 교회교인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전 교인들의 뜻을 시행하기 위하여 “lay messenger” 혹은 “lay representative”이 있었다. 장로교 정치속에 나타난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이라는 어휘는 이 회중교회의 어휘와 거의 같다. 이 두 신학자들은 이런 건전하지 못한 요소를 발견하고 순화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

42 장로의 대표적 성격

민주주의적 이념의 이해 아래 장로를 “교인들의 대표”로 보는 견해는 마땅히 거절되어야 한다. 교회의 직분인 장로는 민주주의적 이념의 “대표”도 “선택된 치리자”도 아니다. 교회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이해는 전혀 수용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다. 모든 직분적 권위와 그 권위의 행사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68)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517-1948*, Second Edition, (London 1967), 234.

그런데 이 “교인들의 대표”라는 어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로직 속에 교회(신자들)를 대표하는 성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장로는 원래 교인들 중에서 나오고, 교회에 속해 있고, 그의 직분이 교회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직분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교회의 치리자로서 선택되었다. 이런 뜻에서 그의 직분은 대표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 대표적 성격은 그의 동료 직분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인 목사들을 떠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당회를 통해 장로들의 대표적인 성격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당회는 전체 기관으로 교회를 대표하게 된다.

장로들의 대표적인 성격은 결단코 민주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장로들은 교인들의 뜻의 집행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의 집행자이다. 비록 직분자들이 교인들의 투표로 선택이 되었을 찌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회 안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다.

43 직분간의 대치 관계

Hodge는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 직분과 장로직분을 예리하게 구별하여 양자를 대치관계에 둔다. 목사는 신권(神權)을 소유한 “성직자”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들에 속했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장로들의 소명은 평신도들의 유익을 보장하는 것이 되고 있다.⁶⁹⁾

이런 직분관은 우리 선진들인 개혁자들이 정죄를 했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Calvin은 이런 구별이 역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했다.⁷⁰⁾

성경은 주의 교회안에 이런 대치관계를 만들므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clerus”란 말을 “주의 몫”이란 뜻으로 이해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에 속한다. 또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나 모든 신자들이 다 “Laos Laikos” 곧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 이런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안에 구별을 지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몫과 잔의 소독이오니”라고 말할 수 있다(시 16:5). 모든 신자들은 성경에서 “거룩하여지진 성도”(고전 1:2)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으로 불려지고 있다.

Hodge는 이런 구별이 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 목사는 전생애를 주의 봉사에 바치고 있는 자요, 장로는 일반직업에 종사하면서 교회치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⁷¹⁾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속(聖俗)을 나누는 그릇된 개념의 위험을 보지 못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성스런 직업과 속된 직업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목사직은 명실공히 직분으로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이고, 장로직은 완전한 직분이라기 보다는 “평신도들의 대표”로서의 교인들의 일꾼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이런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평신도”였다고 볼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이로서 주의 교회의 터를 놓는 일에 봉사를 했다. 그가 한 소위 “세속적 일”이 조금도 그가 받은 직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본

69) Polity, 111.

70) 기독교강요 vi, 17, 47.

71) Polity, 127-129.

을 따르도록 권면했다(행 20:35).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세계에서 세속적인 영역과 성스런 영역사이의 구별은 없다.

Hodge는 하늘의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직분간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는 말씀의 사역자들(목사)의 직분의 권을 옹호하는데 너무 편중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그에게서 교권적인 직분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 안에 직분은 서로 대치된 관계에 있지 않고, 교권적인 상하관계에서 상호종속되는 자리에도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 23:8 20:25~28 참조). 교회의 직분자들은 실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바울은 교회 앞에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 하였다(고후 4:5).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각기 자기 직분으로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한 소명과, 그의 한 몸인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⁷²

그런고로 교회직분간의 대치 관계나, 직분간의 종속관계를 조성하는 견해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해치는 것으로 마땅히 거절되어야 한다.

5. 장로의 안수권

Hodge는 장로들의 권한의 한계를 일반 평신도들의 권한의 한계에 한정했다. 그래서 직분 임직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ministerial act)로 본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독(episcopos)이요 감독이면 치리자요, 교사요, 임직자라는 것이다.⁷³ 결과적으로 그는 장로가 목사장립에 가담하는 권을 부인했다. 그

72) J. Kamphuis, *Diaken en kerkeraad*, in: *Dienst*, xvii (1969), 14.

73) *Polity*, 268 sq.

는 이를 위해 장로교 헌법⁷⁴과 성경⁷⁵에 호소를 했다.

이에 반하여 Thornwell은 장로가 목사의 임직에 참여할 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임직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불러주신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⁷⁶ 그러니 안수로 임직하는 것은 하나의 치리권에 속함으로 장로가 목사임직시의 안수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⁷

그는 이 주장을 성경과⁷⁸ 고대교회의 증거⁷⁹에 호소를 하고 있다.

5.1 장로교의 헌법과 안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정치는 Hodge가 말한대로 목사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전 노회가 하는 일이나, 임직예식시 안수는 목사들(Preaching presbyters)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⁸⁰ 미장로교회 정치도 원리적으로 웨스트민스터의 모범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Hodge는 웨스트민스터총회가 장로직분에 대한 성

74) *The Form of Government of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897, 43, Ch. xv, 14; “Then the presiding minister shall, by prayer, and with the laying on of the hands of the presbytery, according to the apostolic example, solemnly ordain him to the holy office of the gospel ministry.”

75) *Polity*, 293.

76) Thornwell, *Writings*, 93, 94; “God has appointed ordination as a public recognition on the part of His Church of the rights which He Has supernaturally conferred.”

77) *Ibid.*, 95; “Ordination is a judicial decision, and therefore belongs to a court.”

78) *Writings*, 116. 그는 특별히 담전 4:14의 “장로들의 회”에서 디모데가 안수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79) *Ibid.*, 125-128.

80) J. Murray,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223.

경적인 가르침에 관하여 분명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었다. 실상 웨스트민스터총회는 장로들이 목사임직시의 안수에 가담하는 것을 전혀 제외할 의도를 갖지 않았다. George Gillespie가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려주고 있다. 당시 목사만이 목사임직의 안수에 가담한다는 초안이 나왔을 때에 큰 반대가 일게 되었다. 이 때, 목사의 임직예식이 있는 노회에 목사가 그 노회의 성수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이를 받아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⁸¹⁾ Assembly의 일반적인 의견은 목사 임직시의 안수에 장로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복잡했던 역사적 배경을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Thornwell도 이 교회 법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52 임직은 전 노회원들의 일

1. 임직은 목사의 고유한 권한이 아님

Hodge는 임직권이 목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사 개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⁸²⁾ 그러나 성경은 이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도들도 임직에 함께 참여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대로 자비의 사역을 위해 7사람을 세울 때에 사도들이 함께 안수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말미암아 안수를 받고 구별되었다(행 13:3).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었다(딤후 4:14).

Hodge는 디모데와 디도의 예를 들어 목사는 임직에 대한 고유한 권한이 있다고 한다.⁸³⁾ 그는 디도 1:5이나 딤후 5:22을 이를 위

81) George Gillespie, Notes, 71.

82) Hodge, Polity, 268 sq.

83) Polity, 293.

한 증거로 든다. 그러나 먼저 이들을 오늘의 목사와 동일시 할 수 없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은 사도들의 보조자였을 뿐 아니라 준 사도였었다. 다음으로 이들은 칼빈이 말한 것같이 한 직분자 개인의 권위로 직분자를 임직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디모데나 디도가 임직에 있어서 선도적 입장을 취했을 뿐,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원하는 자를 임직한 것이 아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⁸⁴⁾ 그러므로 안수로 임직하는 것이 목사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직은 직분의 수여가 아님

Hodge는 안수로 임직하는 것을 직분을 수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안수로 임직하는 직분자는 임직을 받는 사람과 같은 직분을 가졌거나 그보다 높은 직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⁸⁵⁾ 임직에 대한 이런 견해는 감독주의 정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 정치원리에 따르면 임직은 직분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최후의 의식이다. 부르심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교회가 그를 목사로 청빙하게 된 것이다. 임직예식은 부르심을 최종으로 확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Bouwman교수는 임직하는 행위를 부르심의 극치 혹은 마지막 손질이라고 했다.⁸⁶⁾ 그러므로 임직시의 안수행위가 직분을 위임하거나 전달하는 뜻을 갖지 않는다.

임직에 있어서 안수행위를 임직의 본질적인 요소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수님도 안수없이 그의 제자들을 세우셨다. 마티아도 안수없이 가룟 유다 대신 사도중의 한분으로 세움을 입었다(행 1:26).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중에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 때

84) OC 11, 786, 기독교강요 4, 3, 15.

85) Hodge, Polity, 273.

86) H. Bouwman, *Gerfereformeerde Kerkrecht*, 1, Kampen, 1934 403.

에 안수에 대한 말이 없다(행 14:23).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 일반적으로 안수하여 세우게 된 것으로는 보인다(딤후전 5:22). 이 초대교회의 습관은 일찌기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랍비를 세울 때에 안수를 하게 된 데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습은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운 예를 따라 행해져온 것이 있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안수행위는 안수로 세움을 받지 않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도 행해졌기 때문이다(행 13:3). 임직시의 안수가 결코 임직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안수는 직분의 권위있는 시작이라고 보는 H. Bavinck의 견해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⁸⁷⁾

5.3 안수는 목사의 독점적인 권한에 속하는가?

Hodge는 임직시의 안수권을 목사에게만 돌렸다. 실은 먼저 칼빈이 이 입장을 취했었다. 그가 안수 자체에 큰 뜻을 돌리지 않았으나, 임직행위 자체가 성례는 아니지만은, 딤후전 4:14에 언급함으로써 영적 은혜를 받는 신뢰할만한 한 증표로 생각했다. 그래서 임직시의 안수행위를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게 돌렸다.⁸⁸⁾ 그의 이런 견해는 특별히 그가 성경의 *presbyteros*를 목사로 본 경향이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칼빈의 입장을 따랐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안수의 권을 목사에게만 돌리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부정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 사도행전 13장 초두에서 안디옥교회에 참석한 선

87) H. Bavinck, o. c. iv, 366; "Eene openbare aanwijzing van degene, die tot het ambt geroepen is, en eene plechtige inleiding en bestemming tot dat ambt."

88) OC, 787, 기독교강요 4, 3, 16.

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했다는 사실을 읽게 된다. 이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이방인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하여 세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이들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말씀의 봉사자를 세우는데 안수할 권을 허락하신 것이다. 딤후전 4:14에는 장로들의 회가 다 같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다. James Bannerman은 디모데의 경우가 장로회의 임직행위에 대한 분명한 예를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

Hodge가 안수와 함께 임직하는 권이 목사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인 면에서는 옳으나,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입장을 철저히 선택하게 될 때 감독주의 정치에 기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 결 론

Hodge와 Thornwell간의 장로직에 관한 논쟁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계속된 가장 신랄한 것이었다. 양자의 입장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두분이 다 그 시대의 장로교 세계에서 봉사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었으나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음을 잘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종들은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장로직의 입장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이 두 학자들은 장로직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통해 한세기 동안 교회 정치면에서 각기 남북 장로교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⁸⁹⁾ 이들의 영향은 미국 교회에만 아니고, 선교의 방편을 통해

89) Cf. Ralph J. Danhof, *Charles Hodge as a Dogmatician*, Goes, 1929 172; Earnst Trice Thompson, *Presbyterians in the South, 1607-1861*, Virginia 1963, 518, 535, 536.

세워진 다른 나라 교회에도 미쳐졌다. 그러나 금세기에 이르러 미국에 있는 소위 주류 장로교회는 예큐네이칼 운동의 목적인 교회 일치화를 위해 장로직을 포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장로직을 포기할 때 그 교회는 이상 장로교회가 아닐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소위 성직자정치(clericalism)를 배격하고, 성경적인 장로직을 통해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다.

전 세계교회는 오늘 어느때 보다 더 장로직을 받은 분들이 신실하게 그들의 직책을 수행할 것을 바라고 있다. 사도들이 경고한 대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치는 사나운 이리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교회 안에 침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행 20:28~31). 장로는 자신을 교인들의 대표자 보지 말고, 교회의 감독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대표라는 생각은 교회를 감독하는 책임을 등한하게 한다. 교회를 감독하는 일이 성경을 따른 장로직 직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Thompson은 장로직을 “장로교의 영광이요 힘”이라고 했다.⁹⁰

교회에 아무런 확실한 정치체제가 주어지지 않은 일이 없고, 교회에는 봉사만이 본질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다.⁹¹ 이런 견해는 성경보다 오늘의 예큐네이칼 정신과 일치한다. 이들은 20세기에 살면서 1세기의 체제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개혁주의 정치를 버리고 교회의 교권정치의 회복을 바라는 경향을 가진다.⁹² 이는 개혁주의 신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일치를 요하게 된다.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과 이에

90) Robert E. Thompson, o. c., 229.

91) Robert C. Johnson, *The Christian Ministry*, in; *The Church and Its Changing Ministry*, 22.

92) Robert Brown, *Twenty Century Church*, London, 1970, 21.

대한 분명한 해석이 인간의 어떤 뛰어난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 장로직에 관한 연구가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건설에 적은 봉사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교회나 직분, 혹은 말씀이나 성례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단을 통해 그의 택한 백성을 모우시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⁹³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계신다(엡 4:11,12).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 부르기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를 태내에 받아, 나게 하고 품에 품어 기루고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이다.⁹⁴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과 정치에 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다시 H. Bavinck의 말을 인용하게 된다; “말씀과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고, 교리와 생활이 이 말씀을 따라 건설되기 위해 선한 정치가 필수적이다. 신앙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그 신앙고백을 보존하는 수단이 된다. 불순한 신앙고백이 정치를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그릇된 정치가 신앙고백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자체의 특수한 정치를 주셨다.”⁹⁵ 결과적으로 구원의 교리와 올바른 정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의 직분과 정치를 성경적으로 회복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칼빈도 이 큰 일을 시작했음에 불과했다. 성경적 장로직의 회복을 위한 시작을 한 것이다. 우리는 Hodge와 Thornwell에게서 이 회복의 진전을 보게 된다. 이 연구의 완성은

93) H. Bavinck, o. c., iv, 361.

94) OC 11, 749, 기독교강요 4, 1, 4.

95) H. Bavinck, o. c., iv, 353.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계속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K. Schilder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⁹⁶⁾ 미국 장로교회들 가운데는 근년에 개정된 교회정치의 직분 면에 있어서 원리적인 변화와 진전을 성경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별히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자”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⁹⁷⁾ 그런데 1992년에 개정된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정치에는 이 면에 있어서 원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다.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고 함으로 낡은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⁹⁸⁾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그의 재림의 날을 향하여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 날이 오고, 주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취하시는 날까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교회생활을 개혁해 가는 것이 땅위에 사는 우리들의 큰 의무이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⁹⁹⁾

96) Cf. K. Schilder, *De Kerk* ii, Goes 1962, 203, 204, 207.

97) 1981에 개정 출간된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의 *The Book of Church Order*와 1988에 개정 출간된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의 *The Standards of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에는 목사와 장로를 the Teaching Elderth, the Ruling Elder로 표현하고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란 말을 이상 더 사용하지 않고 있다.

98) 교회정치 제28조.

99) Cf. Gyala Barczay, *Ecclesia semper reformanda: eine Untersuchung zum Kirchenbegriff des 19 Jahrhunderts*, Zurich 1951, 9-19.

목회자 모델의 역사

최 덕 성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양무를 돌보고, 감독하며, 말씀으로 먹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성찬과 세례를 베풀며,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가르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 28:20)고 말씀하심으로써 목회자의 가르치는 사역을,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목양의 기능을 강조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전 1:17; 살전 2:9)고 말했는데 이것은 복음 전도자 혹은 설교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디모데에게는 “감독직”(딤후 3:1)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이것은 목회자의 다스리는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목회자 모델은 시대의 변화와 교회전통의 상이성에 따라 변했다. 목회자를 감독자, 지배자로 여겼는가 하면, 성찬을 분배하는 전문적인 기술자(Technician) 즉 사제로 보기도 했고 설교자로, 목양자 즉 목사로 보기도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자와 교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목사직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